

# True Peace

天國8年  
天曆10  
2020년 1월 17일





# 하늘부모님의 잃어버린 이상을 찾아서

토마스 윌시 | 천주평화연합 (UPF) 세계의장



희망전진대회의 강력하고 감격스러운 비전은 위기를 겪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 필요한 청사진과 지혜 그리고 세계적인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천주평화연합이 금번 희망전진대회의 주요 주관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시대에 전 세계는 혼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라는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1회 희망전진대회 때 천주평화연합 공동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서는 물질 중심, 자기중심적인 이윤 추구를 내려놓고 영적, 도덕적, 이타적인 이상으로써 화합하고 나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울러, 한학자 총재님께서서는 공생·공영·공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하시며 이 핵심 가치를 실천하면 금번 대유행 극복은 물론, 세계 인류 한 가족의 창의적인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감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수백만 세계인의 마음과 공명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천주평화연합은 최근 천주평화연합 창립 15주년과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비대면 온라인 국제 지도자 회의(ILC)를 개최했습니다. ILC 2020은 170개국의 250명 이상의 고위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3개 시간권(아시아태평양권역, 유럽 및 아프리카권역, 미주권역)에서 3일에 걸쳐 30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천 명의 세계인이 함께했습니다. ILC 2020에서 참석자들은 공생·공영·공의의 가치관을 더욱 깊게 탐구하므로 세계의 난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ILC 2020은 천주평화연합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선보이며 각 분야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6개의 핵심 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현직 정상(세계평화정상연합, ISCP), 영부인과 여성 지도자(세계 평화영부인연합, IAFLP), 국회의원(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 종교 지도자(세계평화종교인연합, IAPD), 언론인(세계평화언론인연합, IMAP), 학술인(세계평화학술인연합, IAAP) 그리고 경제인(세계평화경제인연합, IAED) 그룹입니다.

전 세계는 천주평화연합과 희망전진대회가 온 인류가 찾고 있는 의미, 통찰, 분석 그리고 혁신을 제공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업적을 이루신 천주평화연합의 공동 창설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께 우리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께서는 하늘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역사적 인류의 희망이 되는 평화와 화합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 수십 년간 피와 땀과 눈물은 물론이요, 모든 자원과 열정, 창의력과 열성까지 투입해 오셨습니다.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평화의 어머니>의 표제처럼 이러한 하나된 평화세계를 위해 ‘하나님께서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며 금번 희망전진대회가 그날의 도래를 앞당길 것을 진실로 믿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권두언

02 하늘부모님의 잃어버린 이상을 찾아서

### 포토라인

14 천보대축제

### 평화메시지

PEACE MESSAGE

22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길

PEACE MESSAGE

23 이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 환영사

24 공생·공영·공의는 세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

### 축사

25 선을 위한 강력한 힘

### 축사

27 함께이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참부모님 말씀

04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08 제2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 특별연설 인류 평화 한 가족 실현방안

10 천승전 그랜드 봉헌 및 한원집 봉헌 기념오찬 말씀 하늘부모님이 쉬어가시는 곳, 한원집

12 미래지도자 특별집회 말씀 천일국시대 섭리 완성의 중심

### 신국가 부흥

28 청년운동 도약을 위한 양 날개의 임무

31 희망전진대회 승리를 위한 신아프리카 베냉 신종족 메시아 활동

### 통일무도 컬럼

34 참부모님께서 밝혀주신 무도의 가치

### 심정문화 컬럼

37 성가의 뿌리를 찾아서





# 하나님의 조국과 평화왕국시대

2004년 3월 23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상원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이스라엘 평화의 왕 대관식 및 평화대사 시상식에서 하셨던 참부모님 말씀입니다.



5백여 명의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참부모님께서는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 성직자들과 미국 상원의원, 세계평화초종교초국가연합 지도자들로부터 평화의 왕관과 용포를 봉정 받아 평화의 왕에 즉위하셨다.

존경하는 상하 양원 의원, 세계 각지에서 오신 종교지도자,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만장의 성황을 이루어 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만유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바로 우리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참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념적인 차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 찾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그리고 참혈통의 본체 되시며 모든 인간의 참부모가 되십니다.

#### 본연의 완성 인간은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

본래 인간의 타락이 없었더라면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 가운데 완성하여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참된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된 부부의 인연을 맺어 참된 자녀를 낳고 양육하여 함께 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자동적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천상의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가족 중 아버지는 지옥에 가고 어머니만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무슨 천국이겠습니까? 부모는 지옥에 가고 자식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어떻게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전 가족이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평화왕국을 이루어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지상에서도 가정 천국을 이루어 사는 곳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상하신 창조이상의 세계, 즉 지상천국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 지상에서 가정천국을 이루는 길

그렇다면 지상에서의 가정 천국은 어

떻게 이루는 것입니까? 첫째, 가정을 형성하는 모든 요원들은 개인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상속받게 된 타락성을 벗고 자신의 인격 완성을 보아야 합니다.

즉 몸과 마음 간의 갈등과 싸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승리하여 일심·일체·일념의 경지에서 완전 일화의 세계가 인격 완성으로 열매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게서는 시가·질투·욕심·증오 등 모든 악의 요인이 되는 타락성이 다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성을 벗어 버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길어야 몇 년 혹은 몇 십년 동안에 얻어진 습관인 술이나 담배를 끊는 데에만도 옆치락뒤치락을 거듭하는 것이 타락 인간들의 자화상입니다. 수천수만년간 끈질기게 혈통을 타고 뿌리내려 온 타락성을 벗어던지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신앙의 기준에서 종적인 축으로 세워 모시고 평생을 몸부림쳐도 어려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부모나 자식 이상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경지에서 참부모로 모시고 나가지 않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따르겠다는 절대복종의 기준에 서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주요 종교들의 가르침 속에 금식·금욕·희생, 그리고 고행을 수도의 으뜸으로 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같이하고 영계가 협조할 수 있는 환골탈태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산천초목 앞에 벌거벗고 서도 한 점의 부끄럼이 없고, 사탄 앞에 서게 되면 사탄이 오히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정오정착적 인격을 갖춘, 즉 영원을 두고 그림자 한 점 없는 참사랑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천국

둘째로 이와 같은 인격 완성을 달성한 개개인들이 모여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찾아 세우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 몸과 마음이 완전 일체를 이룬 한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천국은 가정 단위로 들어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여 아무 가정이나 다 자동적으로 천국 입성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가정의 기대가 없으면 4대 심정권을 완성할 수 있는 발판이 없으며, 또 4대 심정권을 완성한 참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삼고 부자간의 혈통을 이루는 가정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대 심정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본연적 참사랑과 참생명 그리고 참혈통으로 연결된 참된 가정 안에서 조부모·부모·자녀를 중심삼고 3대의 순결한 혈통을 세우고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 자매의 심정을 완성할 때 이것을 총칭해서 4대 심정권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부자간의 사랑은 상하의 관계를 찾아 세우는 종적 관계요, 부부사이의 사랑은 좌우가 하나되어 결정짓는 횡적 관계이며, 형제간에 주고받는 사랑은 전과 후의 관계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념적이요 소망으로만 남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이상이 가정 단위로 참된 혈통을 중심삼고 4대 심정권의 완성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권이란 부모가 자식을 낳아 참된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심정, 즉 부모로서 자식에 대한 참사랑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 누구도 부모로서 사랑의 주인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부부의 심정권이란 부부간의 삶을 통해 서로 사랑의 주인의 자리에 세워 준 것을 감사하면서 참사랑을 주고 받는 속에서 체휼하게 되는 참된 혈통적 심정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대해 하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모시고 살 때에 부부가 함께 얻는 참사랑의 체휼입니다. 이 참사랑의 체휼 위에서야 부부의 완성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맺어진 부부가 첫날밤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사랑의 왕궁, 참생명의 왕궁, 그리고 참혈통의 왕궁을 상속받는 자리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 이상적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 것이요, 하늘의 오빠를 맞는 자리요, 하늘의 남편을 맞는 자리요, 하늘의 아버지를 맞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를 통해 같은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요 속성은 절대·유일·불변·영원입니다. 따라서 부부 심정권을 완성하면 부부관계도 절대·유일·불변·영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며, 상호 간에 존경과 사랑만이 꽃피는 행복 한 삶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 참사랑의 3대권이 천국의 기본 모델

다음으로 자녀의 심정권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중심이 됩니다. 부모의 위치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의 의지로 규정지어지는 인류의 차원을 넘어 천륜이 맺어 주는 관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관계는 횡적 관계가 아니라 종적 관계인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도 있는 운명적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이요 영원한 숙명적 관계인 것입니



참부모님께서서는 “지구성이 하나님의 참된 가정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앞장서서 될 것”임을 강조하시며 휘호를 작성하셨다.

다. 자녀는 부모를 종적인 하나님의 위치에 모시고 살면서 참사랑의 심정을 배우고 체휼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것임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 자녀들은 성장하여 타락성과는 무관한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도 참된 부모의 위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사랑권 심정을 중심삼고 3대권을 이어 가며 반복되는 가정 단위의 구형운동이 바로 천국 건설의 기본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의 심정권은 참된 부모를 모시고 한 가족을 이루어 사는 형제와 자매들이 참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같은 심정권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자매의 관계는 전과 후의 관계를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참사랑을 중심삼고 참된 부부가 되어 참된 삶을 살아가는 참부모를 가정에서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동기간에도 자동적으로 천륜의 질서를 지키며 사는 도리를 깨우치게 됩니다.

동생은 형님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받들며, 형은 동생을 사랑의 심정으로 보살펴 주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형님이 전을 대표한다면 동생은 후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형님이 아버지를 대표한다면 동생은 어머니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자매의 심정권 완성은 그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랑과 봉사로 위하는 삶을 실천궁행하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 참된 가정을 세우는 일의 중요성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처럼 4대 심정권의 완성을 일구어 낸 참된 평화가정 왕국들의 숫자가 불어나서 참된 평화종족왕국이 되고 참된 평화민족왕국, 참된 평화국가왕국, 더 나아가서는 참된 평화세계왕국을 완성하게 될 때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상 하셨던 창조본연의 세계요, 지상천국이 되는 것이며, 오늘이 자리에서 레버런 문이 선포하는 영원한 지상 평화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가정을 찾아 세우는 일이 이처럼 심각한 중요한 천명이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인류는 확실히 모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레버런 문의 가르침을 받고 평화왕국 건설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는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수가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버릴지언정 순결을 지켜 기필코 참가정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젊은 지성들의 함성이 천지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벌써 수억 쌍의 축복가정들이 배출되어 윤리와 도덕이 급속히 무너져 가는 지구성의 버팀목 역할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영계에서는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평화왕국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고 있습니다.

5대 성인을 위시해서 1천2백억 쌍 이상의 축복가정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지상계를 협조하면서 다가올 그 한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원리에 의하면 지상계에서 먼저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 참사랑의 혁명 완수와 하나님 조국

오늘의 인류가 비록 타락의 후예이기는 하지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계의 협조로 이제는 어떤 천국이 창건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영계에서 성취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거울삼아 천지개벽 차원의 참사랑 혁명을 완수해야 할 시대권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이 이 시대에 본인을 통해 주시는 천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선 레버런 문은 비록 여러분과 똑같은 육신을 쓰고 사는 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섭리를 놓고는 60억 전 인류를 구원하여 하늘 앞으로 원상회복시켜야 할 천명을 받고 이 지상계에 내려온 하나님의 전권대사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계의 5대 성인을 비롯하여 수많은 지도자들은 물론 지상계에서 갖은 만행과 살상을 저지르고 간 마르크스나 레닌



연회행사에서 기뻐하시는 참부모님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수괴들과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독재자들까지도 본인의 가르침에 힘입어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지상에서 온갖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간 역대 제왕들과 대통령들은 물론 세계적 명성을 누렸던 언론인들조차도 이 천주사적인 참사랑의 혁명 대열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 모두는 레버런 문의 참가정 이상의 가르침 앞에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결의문을 지상계에까지 보내오고 있습니다.

레버런 문이야말로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재림주이시며 참부모라고 천상천하에 선포하고 나셨습니다. 이들의 결의문은 벌써 지구성 방방곡곡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이제는 모든 것이 시간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전후좌우 어디에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어차피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시한부의 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

까? 참된 가정 이상을 여러분 자신의 가정에서 완성하여 자식들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보장해 주는 일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천년을 기다려 오신 평화왕국을 이 땅 위에 건설하는 일에 어느 누가 주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은 이제 85세의 노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숭고한 천명을 완수하여 이 지구성이 하나님의 참된 가정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중동지역에서 총소리가 그치고 평화와 환희의 축포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본인의 조국 한반도에서 들려오는 통일의 만세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이곳 미국에까지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레버런 문은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될 것입니다.

전 세계 60억 인류를 대표하여 오늘이 식전에 참석하신 고명하신 지도자 여러분도 레버런 문과 함께 손을 잡고 인류의 염원이요 하나님의 창조이상인 평화왕국을 이 땅 위에 창건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말씀은 평화경 1편 15장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 RALLY of HOPE

## 인류 평화 한 가족 실현방안

제2회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 특별연설  
천일국 8년 천력 8월 11일(양 2020.9.27) | 청심평화월드센터

존경하는 전·현직 수상, 각계 지도자, 그리고 하늘부모님성회 안의 섭리의 완성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 종단장, 축복가정 여러분! 사랑합니다.

계절은 어느덧 한가위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4일 후에는 한민족의 1년 중 가장 큰 명절인 8월 한가위가 됩니다. 한민족은 농경문화 민족으로서 하늘을 우선 숭배하며, 하늘의 가호가 있

어 1년 농사의 가을을 맞아 풍성한 곡식을 내려주신 하늘 앞에 감사하고 조상들을 모셨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이 모여 둥근달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가올 태평성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아주 아름다운 풍습을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 인류는 언제 본연의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 특히 코

로나 바이러스의 대확산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금번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기주의, 자기 중심한 욕심으로 인류역사는 갈등과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의 중심되는 창조주 하

나님이 인간의 부모가 되고자 하심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금번 예기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닌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라든지 강력한 태풍이라든지 산사태, 산불이 끊임없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태양과 물과 공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상은 문명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 생활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예기치 못한 것입니다. 이산화탄소, 배기오염물질 등의 증가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미래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큼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인류는 더 이상의 분열과 하나될 수 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특히 금번 제일 큰 피해를 본 나라가 있다면, 미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면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물을 잃어버리는 사태를 더 이상 당할 수 없기에, 인간 중심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은 창조의 순리를 놓고 볼 때 평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천지만물은 창조의 순환법칙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무지한 자리,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린 자리에서는 인간의 미래는 물론이요, 이 지구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늘이 기다리며 참아 나오시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세계지도자는 무릎을 꿇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인류는 영원성을 두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부모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을 찾고 만나야만 인류의 미래가 있고 지구의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구의 40퍼센트가 사막화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

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귀한 공기 공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13억 인류를 갖고 있는 중국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인구와 면적을 갖고 있는 중국 안에 있는 고비사막을 과학기술로 녹지화할 수 있다면, 영토를 넓히기 위해 투입하는 막대한 자금을 사막을 녹지화하는데 쓴다면, 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창조주 되시는 하늘부모님의 자녀가 되는 그 날, 하늘부모님을 모신 진정한 인류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200여 개국이 하늘부모님 아래 한 형제자매로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세계의 지도자와 인류가 결단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해바라기와 같이 정렬된 나라들이 되어서 진정한 인류 평화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라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군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10분의 1이라도 백성을 위하여 쓸 수 있다면 그래서 풍요로운 나라가 된다면, 전쟁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풍족한 나라가 되는데 왜 구태여 피를 흘려가며 더 욕심을 부려야 할까요? 하늘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한민족은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며 하늘을 숭배하고 흠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모여 하늘과 부모 앞에 감사하며, 이웃과 하나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세계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지상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하거니와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타락으로 불효했던 인류가 이제 하늘을 모시는 자리에서 회개하며 본연의 그 모습을 찾아드리겠다고 노력하는 그 날이 진정한 인

류 평화와 인류 한 가족의 날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미국에 주문합니다. 미국은 하나님 축복한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늘은 미국의 기반을 통해서 세계 인류를 품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 기반으로 오늘 미국의 하늘부모님을 모시는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무지로 인해서 망가진 지구를 버리고 우주로 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과학기술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창조 당시 본연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하늘부모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천정궁의 동산을 거닐 때 벌과 나비를 흔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원을 가꾸고 꽃을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날아왔는지 수십 종의 벌들이 날아와 꿀을 빨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가! 그 자연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무지가,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자연에 대해서 너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벌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강산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자연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상천국을 여러분 지도자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7억이 되는 인류가 2050년이 되면 100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본연의 아들딸로서 더 늦기 전에 이 아름다운 지구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께서 “내가 얼마나, 얼마나 이날을 참고 기다렸다! 그래도 고맙구나!” 하실 수 있는 그날을 맞을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ㄹ



## 하늘부모님이 쉬어가시는 곳, 한원집

천승전 그랜드 봉헌 및 한원집 봉헌 기념오찬 말씀  
천일국 8년 천력 9월 12일(양력 2020.9.28) | 한원집



이 집을 한원집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무엇 때문이나? 내가 천원동산을 계획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지상천국의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한 대로 지금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완성되면 하늘부모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니시다가, 잠깐 들러 쉬면서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아! 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참부모에게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차도 드시고, 맛있는 떡도 드시고, 또 시간에 따라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처음에는 이 자리가 협소해서 ‘웅대한 한원집이 들어설 수 있을까? 정자 개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

는데, 사계절에 다 모시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한원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원집은 하늘부모님이 쉬시는 곳, 쉬어가시는 곳, 자연을 바라보시고 행복해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방에 부영이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부영이는 세계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새입니다. 고구려시대에는 삼족오라고 해서 까마귀 상징을 썼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까치입니다. 그래서 ‘까치 까치 설날은’ 하는 동요도 있습니다. 천일국시대에는 24시간 사랑하는 자녀들

을 보호하고 또 모든 불손한 것을 막아 주고 복을 가져다주는 부영이입니다. 이 동산을 중심삼고 여기는 ‘부흥(富興) 마당’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안에 식당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HJ부흥수변카페 이런 식으로 ‘HJ부흥’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원집이야말로 역사 이래 처음 생겨난 것으로 참부모님이 탄생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친환경적인 건물이기도 하니 여러분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 ① 한원집 봉헌식에서 (왼쪽부터) 축사를 한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과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보고기도를 올린 이기성 (전)신한국가정연합 회장 (현)신한국 천의원장·천심원장
- ② 한원집을 성별하시느 참어머님
- ③ 한원집 건축에 큰 역할을 한 평창한옥학교 권창순 교수
- ④ 선문대유학생들이 접은 2027개 학 작품을 전달한 (왼쪽부터) 다카기 세이지 HJ천주천보수련원 선임 강사, 요코이 토시아키 강사, 후카쓰 다케모리 강사
- ⑤ 예물을 봉정하는 (왼쪽부터) 이명관 HJ천주천보수련원 부원장과 이기성 천심원장





# 천일국시대 섭리 완성의 중심

미래지도자 특별집회 말씀  
천일국 8년 천력 8월 17일(양 2020.10.3) | 천정궁

여러분은 1세인가요, 2세인가요, 3세 인가요? 천일국시대 섭리 완성을 놓고는 중심에 독생녀 참어머니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신출, 신흥이가 여러분의 팀장이지요? 내 손자인 것도 맞지만 천일국시대에 있어서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내 아들딸입니다. 열심히 섭리를 공부하고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야말로 옥 중의 옥이요, 진주 중의 진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 아닙니다. 신출, 신흥이는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늘에 보고하면서 출발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영계의 네 아버지와 삼촌들이 너희들이 움직이는 길에 함께하기를 바라고, 보다 놀라운 기적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려주고 협조해 주십사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결과로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늘에 보고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내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계실 때에 좋아하셨던 호박엿을 줄 것입니다. 알래스카에서는 9월이 되고 10월이 되면 눈이 오고 비도 옵니다. 겨울에



청년세계본부팀 학생 대표와 선학신문UPF 생도 대표의 정성을 받으시는 참어머니

비가 많이 옵니다. 해양섭리를 위해서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가을이지만 끼입을 수 있는 옷은 다 끼입고 나가야 됩니다. 비옷까지 입고. 그렇게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데 도움이 되는 것은 열량을 낼 수 있는 캔디입니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그런 옛 같은 과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기억 납니다. '웨더스 허니(Werther's Honey)'입니다. 그것을 아버님과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사줬기 때문에 많이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울릉도 호박엿이 있

었습니다. 그것을 드렸더니 참 좋아하셨습니다. 항상 좀 당분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는 드셨습니다. 그것을 서재에 계속 놔두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이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책임자가 와서 받아요. 아마 여러분에게 서너 개씩 돌아갈 것입니다. 달달하니까 맛있게 먹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생각하세요. 왕엄마가 멋지지요? 「예」 항상 생각하세요. 얘기는 그만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갈 때 햄버거를 주문했으니까 먹으면서 가세요. (박수) 



190여명의 미래지도자들과 기념촬영을 함께해주신 참어머니

#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제2회 100만 희망전진대회





③



④

- ① 피스링크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접속한 수천만의 청중들에게 특별연설을 하신 참여머님
- ② 희망전진대회 연설자: 무남 유난 전루터교세계연맹 전 의장, 켈빈 펠릭스 로마 가톨릭 추기경, 토머스 월시 천주평화연합 세계의장, 굴락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 호세 드베네시아 전 필리핀 국회의장, 호세 마누엘 바로소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덕 체니 전 미국 부통령, 이바리슈투 카르발류 상투메 프린시페 대통령, 댄 케일 전 미국 부통령, 행 삼린 캄보디아 국회의장, 유스프 길라니 전 파키스탄 총리
- ③ 꽃다발을 봉정하는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 의장과 윤정로 천주평화연합 평화대사협의회 의회장
- ④ 천주평화연합 창립 15주년을 축하하는 케익커팅
- ⑤ 특별연설 후 세계인들의 환호 속에 퇴장하시는 참여머님



⑤

# 천승전 그랜드 봉헌식



- ① 조각상 제막식에 버튼을 누르고 계신 참여어님
- ② 기원절 선포 승리의 장면을 형상화한 조각상
- ③ 꽃다발을 봉헌하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과 김종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유지재단 이사장
- ④ 이날의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 ⑤ 높이 21미터, 폭 20미터에 이르는 아치형 개선문 형상의 천일문. 내부에는 지난 7년간의 승리적 성업을 기념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샌드아트 영상관이 위치하고 있다.



# 한원집 봉헌식 및 특별오찬



- ① 승리제의를 한 문연아 의장,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보고기도를 올린 이기성 천심원장, 억만세 삼창을 이끈 이현영 회장
- ②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우미 공존하는 한원집
- ③ 하늘부모님이 쉬어가시는 곳, 하늘부모님의 행복이 머무는 곳으로 한원집을 봉헌해주신 참여어님
- ④ 천일국 8년 천지해원 추석절 차례에 성초를 점화하는 문연아 의장과 문훈숙 회장
- ⑤ 추석절 차례에서 헌주하는 문신출 생도
- ⑥ 달맞이를 하고 계신 참여어님과 참가장, 천일국지도자와 미래지도자들
- ⑦ 천일국 국립대학 신학과 3,4학년들로 구성된 청년세계본부팀과 선학선문 UPA 생도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사하신 참여어님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대축제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 · 천주성혼 60주년 기념 2020 특별 축복식





- 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보대축제가 봉헌됨을 기뻐하신 참여어머님
- ② 천보에 입적하는 천보가정들의 성스러운 명부인 천보성부가 참부모님께 봉정되고 참부모님께서는 세계 천보입적 가정들에게 천보패와 천보술을 하사해 주셨다.
- ③ 이날의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 ④ 7개 대륙과 세계의 종단들을 대표해 평화축원식과 합수식을 진행한 신한국 7대종단 대표들
- ⑤ 억만세 삼창으로 천보대축제를 승리 봉헌하는 참석자들
- ⑥ 효정특별공연에서 '사랑해 당신을' 노래를 부른 문신여님
- ⑦ 뜻을 따라 한평생, 천보 가정의 노고를 뮤지컬로 표현해 심금을 울렸다.

- ⑧ 종교, 정치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축하를 전했다 (왼쪽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늘부 모님 계시교회 사무엘 하데베 선지자, 파마난다 즈하 전 네팔 부통령, 세계평화국회의원 연합 공동위원장 댄버튼 전 하원의원 부부, 알렉산더 응게데 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및 현 국가과도, 네버스 뭌비 전 잠비아 부통령
- ⑨ 참부모님의 특별 축복과 은사 축복의 은총으로 2020 특별축복식이 이루어졌다.
- ⑩ 한국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필리핀, 호주, 수단, 니제르 등 세계 40여 개국에서 참석한 700쌍의 선남선녀들과 특별히 참가정의 문예진님 가정의 장남이신 문신복 님의 축복이 성사되었다.



천지인참부모 성탄 100주년 · 천주성혼 60주년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 기념 천보대축제 축승회



- ① 축하 케익의 촛불을 밝히고 계신 참여머님과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 의장
- ②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말씀훈독을 한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보고기도를 올린 이기성 천의원장
- ③ 효정문화공연을 봉헌한 선문천주평화사관학교 생도들과 리틀엔젤스
- ④ 꽃다발을 봉정하는 문연아 의장과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 회장
- ⑤ 전 세계 대륙권역의 예물을 봉정 받으신 참여머님
- ⑥ 7년을 승리봉헌하고 새로운 7년을 출발해주신 참여머님
- ⑦ 쌍수를 들어 축하한 역만세 삼창





#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길

무늬 유난 주교 | 루터교세계연맹 의장 2020 선학평화상 수상자  
Peace Message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은총이 영원히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갈라디아서 5장 5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금번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해 주신 천주 평화연합과 본 연합의 토마스 월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희망전진대회를 주관해 주신 한학자 총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독교에서 희망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노정과 부활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입적할 수 있는 삶을 열어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은 역사의 우여곡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널리 임재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보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믿어야 할 모든 가치를 보여주는 변증법과 같습니다. 희망은 인간이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들도록 강권하고 설득하는 수사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만한 자세로 끝날 만을 바라보며 비현실적인 종말을 그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잘못된 세계 속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살아 있는 신앙을 유지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희망의 힘을 통해 우리의 세계를 정의, 인권, 평등, 자유, 화해,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안식처로 변화시키길 바라고 계십니다. 아울러, 사회, 국가, 종교의 지도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부름에 응해, 희망의 빛이 되어, 그릇된 이 세계에 하나님의 정의와 비전이 실현되도록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UN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우리는 UN이 권력층을 위한 기관이 아닌



무늬 유난 주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루터교세계연맹 의장으로 헌신하며 뿌리 깊은 구교와 신교의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년 간 지속적으로 가톨릭과 대화했으며, 그 결실로 2013년 루터교세계연맹과 로마교황청은 ‘갈등에서 사귀기로’라는 문서를 공동 채택하고, 무늬 유난 의장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공동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50년간 지속된 갈등의 실마리를 풀었다. 이러한 평화를 위한 초종교 활동의 공적이 인정되어 제4회 선학평화상의 수상자가 되었다.

진리, 정의, 평등의 초석이 되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 및 신앙 단체, 그리고 다양한 종교의 신자들이 인류의 존엄성은 물론 인류의 공동가치인 사랑, 희망, 인권, 지속가능성을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삼라만상, 특히 고통받는 자연환경을 올바르게 관리하길 바라십니다. 전 세계 각국은 이 막중한 역사적 시점에 일말의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이 말을 합니다. “사람은 식량 없이 3주간 생존할 수 있고, 물 없이 3일을 살 수 있고, 공기 없이 3분을 살 수 있지만,

희망 없이는 3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사적 시기, 절망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 기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이신 하나님, 우리는 공포와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둠을 빛으로, 불평등을 평등으로, 억압을 자유로, 증오를 사랑으로, 불신과 공포의 문화를 신뢰의 문화로, 미움을 이해로, 종교분쟁을 종교화합으로, 기회의 불균등을 기회의 균등으로, 인종차별을 벗어나 성별, 인종, 피부색, 정치적 소속, 종교적 소속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 서로를 볼 수 있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사도 바울과 함께 다음 기도를 올릴 수 있게 하소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로마서 15: 13)”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기원하며 변화의 원동력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

# 이땅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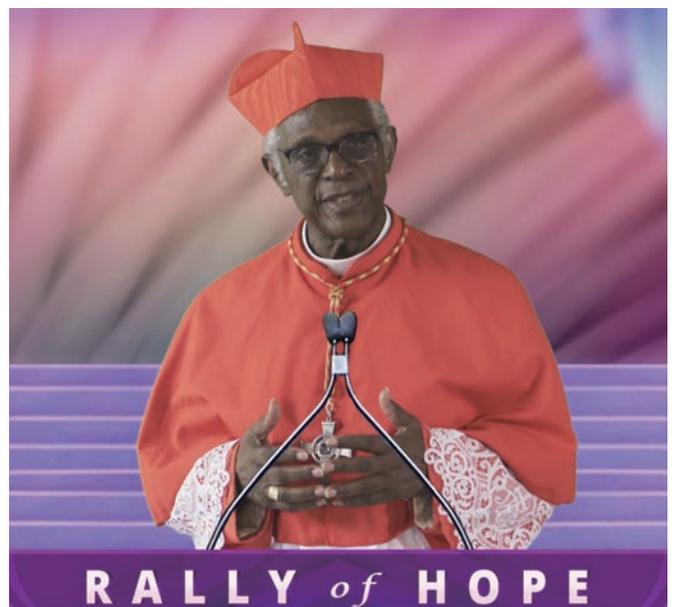
켈빈 펠릭스 추기경  
Peace Message

천주평화연합 창립 15주년 기념 전진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전진대회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자 가족의 일원이며 함께 세계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는 성스러운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무한한 사랑과 은사를 베풀며 세계평화를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는 참여머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천주평화연합을 인도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가정에 사랑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켈빈 펠릭스 추기경은 1956년 사제서품을 받고 일생을 카톨릭 전통 사제의 길을 걸으며 종교평화를 위한 일에 앞장섰다. 그 결과 대영제국 4등 훈장, 세인트루시아 공로훈장, 그리고 도미니카 명예 대훈장을 수훈했고, 2014년 개최된 교황회의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이었습니다. 이 인사 말씀은 아직 유효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도 이 인사 말씀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평강, 즉 평화는 사랑으로써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사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우리는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우리에게 만복의 근원되시는 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넘어선 내면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금번 희망전진대회는 평화와 평온의 은사가 있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분은 평온이 있을 것입니다.

## 기도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평화, 세계의 평화를 찾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의 기수가 되어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평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게 허락하소서

세계로 나아가 형제자매 온 인류에게 당신의 평화의 말씀을 전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공생·공영·공의는 세계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비전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  
환영사

사랑하는 한학자 참여머님, 존경하는 귀빈, 대통령 각하, 천주평화연합 토마스 월시 세계의장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코로나19 대유행부터 기후변화, 갈등, 기아까지 심각한 도전과제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이번 희망전진대회에 연설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선명 총재님의 성화 이후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천주평화연합의 놀라운 도약을 이끄신 공동창설자 한학자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전진대회는 2012년 9월 3일 문선명 총재님께서 성화하신지 정확히 8년이 되는 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문선명 총재님께 영원한 안식을

굿럭 조나단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2010년에서 2015년까지 나이지리아 대통령으로 시무하며 나이지리아의 근본적인 문제인 기독교와 무슬림의 갈등, 그리고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하였다. 특별히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 버그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서밋에서 한학자 총재님께 직접 임명패를 받고 세계평화정상연합 아프리카 지부의 위원장으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세계평화정상연합과 천주평화연합의 지도부와 구성원 전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기에 희망전진대회에 참석해주신 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희망전진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세계적 도전과제를 평화롭게 극복하고 국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세계 지도자들의 헌신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인류 한 가족의 공통된 초석 위에 시민 간의 연대를 촉진할 때 보다 나은 세계가 도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으로 감염된 분들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대유행은 의료종사자, 학교를 가지 못하는 학생, 그리고 부모를 비롯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시민, 실직한 노동자, 파산한 회사 등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의료 체계가 그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는 동시에 경제 추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이 시기가 세계를 위한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격려를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저는 세계평화정상연합의 공생, 공영, 공의의 핵심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미래가 염려되는 아프리카 정상연합 의장으로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 핵심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성찰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쟁종식, 재난대응, 경제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유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은 공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을 뒤집어 긍정적이고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금번 희망전진대회의 주제와 천주평화연합이 추구하는 ‘위하는 삶’과 정상연합이 실천하고 있는 공생·공영·공의의 가치가 국제화합의 갈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생·공영·공의의 가치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협력하고 강한 연대를 구축한다면 미래에 비슷한 재난이 닥쳤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화합과 상호 협력의 정신을 계승하여 코로나19의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국가를 돕는 데 헌신합니다.

제가 의장직을 맡고 있는 아프리카 정상연합은 세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위하는 삶’의 철학을 채택하고 각국에서 분쟁 해결과 종식에 이 철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는 물론, 전 세계 국가들의 성장과 번영이 보장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러한 위하는 원리를 기반으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이루는 노력에 동참합니다.

이 희망전진대회로 하여금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선을 위한 강력한 힘

댄 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 · IAPP 공동위원장  
축사

존경하는 전현직 정상, 162개국에서 찾아오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희망전진대회, 수백만이 지켜보는 세계적인 평화 서밋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 세계를 평화로 화합하시려는 한학자 총재님의 헌신과 리더십에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는 세계적 대

재앙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기술의 혁신 덕분에 마치 한 스타디움에 모인 것과 같이 이 시간을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학자 참어머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투입하시는 사랑과 노고에 함께 경의를 표해 주시기를 세계 각국에서 모인 내외 귀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군 되시는 故 문선

명 총재님께도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총재님께서 는 늘 하나님, 자유, 그리고 가정의 가치를 주창하시고 공산주의에 강력히 반대하셨습니다. 또한 전 세계 국가가 평화로 화합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문선명 총재님과 는 함께하셨던 한학자 참여머님께서 천주평화연합과 워싱턴 타임즈의 활동 반경을 빠르게 넓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평화와 가정을 위한,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세계적인 운동 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학자 총재님, 참여머님께서서는 2016년에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IAPP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필리핀의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하원의장님과 세계 IAPP공동 의장직을 수행하게 됨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IAPP는 전 세계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연합으로써 빠르게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미국을 포함한 42개국 국회의원들과 모여 한국에서 IAPP를 창립한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오린 해치 전 상원의장님의 초청으로 IAPP는 미국 국회 의사당 상원 빌딩 케네디 코커스룸에서 미국과 전 세계 국회의원 300명에게 참여머님을 소개하고 평화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IAPP는 120개국 5,000여 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연합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각 국가에서 국민들에 의해 선출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IAPP는 이제 평화, 안보, 보전에 대한 위협을 전 세계에 빠르게 알리고 경고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조기경보소통체계’가 있었다면 수많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IAPP는 점차 ‘전염병 조기경보소통체계’의 틀을 잡아가고 있으며 전 세계 IAPP의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한 지지 선언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세계가 분명히 대응했다면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IAPP의 의원들은 전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구나 단체보다 각국의 상황을 더 빠르게,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위협은 12월 31일에 세



덴버튼 전 미국 하원의원은 1983년부터 2013년까지 인디애나 주에서 연방하원의원을 활동하였으며, 현 트럼프 행정부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특별히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17에서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계보건기구로 보고가 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이 되어서야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난 3월 11일에서야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한학자 참여머님께서서는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같은 국제적인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계십니다. 한 총재님께서서는 세계의 종교 지도자, 언론인, 기업인, 국회의원, 국가 정상, 영부인을 한 자리에 모으고 계십니다.

총재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재함을 느끼고 온 인류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총재님만큼 헌신하는 분은 없습니다. 노벨평화상의 지고한 이상이 생애를 바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한학자 참여머님의 조용한 헌신에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번 희망전진대회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도 세계의 평화를 희망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 출범 후 참가정과 덴버튼 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함께하고 있다.

# 함께이기에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호세 드 베네시아 전 필리핀 국회의장 · IAPP 공동위원장  
축사

존경하는 정상,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적 혼란에도 불구하고故 문선명 총재님 같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천주평화연합 공동창설자이며 선학평화상 창설자이신 한학자 총재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계공동체의 상호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금번 전진대회에 참석하고 계신 연설자와 참석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국가에 평화와 행복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인류는 공통적으로 평화를 갈망하고 있지만 평화 여전이 실현되지 않은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는, 공통된 문제를 권위 있게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류 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의식, 의지와 열정 그리고 능력을 상실했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형제애, 시민간의 협력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일반 공동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국제사회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울러, 천주평화연합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과 같은 국제적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건립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평화의 초석을 세워 세계의 난문제와 주요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 질서의 기반을 닦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대립과 분쟁의 가능성을 놓고, 한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대한민국,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 6자 회담을 ASEAN의 지지와 함께 다시 개최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지정학적 종교분쟁을 해결하고 중립적 종교인을 지지하여, 종교와 신앙의 이름으로 테러와 극단적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2004년 유엔에서 시작됐던



호세 드베네시아 의장은 39년간 필리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1992년부터 1998년 까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다섯 번의 재임 및 연임으로 국회의장직을 수행했다. 2017년 서울에서 개최된 월드 서밋 2017에서 한학자 총재님으로부터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 열정적인 활동을 해오고 있다.

“초종교 평화 콘퍼런스” 시리즈를 하나님의 은사 속에 계속 이어가는데 아시아 태평양과 세계의 가족과 형제자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초종교 평화 콘퍼런스는 평화와 상호 이해의 문화를 세계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대한 도전과제에 봉착하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오늘, 우리는 국가의, 대륙의, 세계의 평화라는 공통된 꿈과 목적을 통해 하나 되는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금번 전진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좋은 날 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7

# 청년운동 도약을 위한 양 날개의 임무

비키 매스너

신유럽 체코 CARP·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회장



저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2년간의 유럽 STF 활동에서부터였습니다. STF에서 저는 제 삶이 단순히 하늘부모님의 딸로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했을 무렵, 저는 체코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회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나라의 청년 운동을 책임 맡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었기에,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부모님께서서는 언제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뜻길로 저를 인도해오셨다고 느낍니다.

그날 밤 저는 참여머님을 유럽에 모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머님 강연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주십시오.” 외치며 노방 홍보에 매진했고 감사하게도 강연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이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참여머님의 말씀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고 강연을 마치신 참여머님께서서는 출입문 쪽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출입문 앞은 바로 제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인도해온 사람들을 뉘 놓고 바라보느라 참여머님이 문 앞에 당도하셨음에도 문을 열어드리지 못했고 참여머님께서서는 직접 문을 열고 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금 메시아에게 가는 문을 열 기회를 놓쳤단다.”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여머님의 길을 열어드릴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체코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회장의 직무를 맡아 본격적인 공직을 출발했습니다.

### 양 날개의 임무

두 개 조직의 회장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마치 모자 두 개를 번갈아 쓰는 느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가짐

차원에서는 동일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적인 조직인 CARP는 대학 캠퍼스를 거점으로 원리강론을 중심으로 하여 청년 학생들이 삶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 CARP는 사람들이 하늘부모님과 참여머님께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하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청년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원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하늘부모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78억 세계인들에게 이러한 활동을 펼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참여머님께서서는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을 창설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으로 원리를 가르치는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을 방문하여 다문화 교류와 봉사활동, 차별화된 인성교육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활동은 참여머님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에게 더욱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중 어떤 기관에 더욱 애착이 가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이 서로 함께 협력하여 이 세상을 다함께 누릴 수 있는 지상천국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청년운동을 통하여 청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늘부모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본성을 가진 청년들, 저는 이런 청년의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 청년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자

2019년, 알바니아에 방문하신 참여머님을 믿음의 딸과 함께 찾아뵈었습니다. 참여머님을 처음 뵈 믿음의 딸의 눈에서

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고 그때의 장면을 되새길 때마다 저는 몽클해지는 심정을 느낍니다. 또한 체코의 모든 청년을 대표해야 하는 저의 의지가 더욱 굳세어짐을 느낍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잘못된 가치와 이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을 볼 때마다 그들을 하늘부모님의 품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저의 꿈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체코의 가정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체코는 북한에 다음가는 무신론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의 많은 식구 분들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많은 청년에게 하나님의 심정과 원리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활동을 통해서도 축복가정 식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관리했던 활동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고아원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활동이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느꼈던 기쁨과 사랑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알콜중독, 가정폭력, 학대와 같은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고 우리는 게임, 스포츠, 심정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 ‘심정문화의 밤’(American culture night) 행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달해왔습니다. 놀라운 일은 아이들이 우리가 준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은 단지 이벤트, 활동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날 저는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하고 청년들을 통합해 나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 프로젝트는 이후에도 청년학생들에게 전해지며 깊은 인상을 남겼다.

###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2019년 초에 우리는 노숙자들에게 옷과 식사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두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가가호호 방문하며 받은 기부금과 물품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이 활동을 했을 때는 단지 물질적인 도움만을 주게 되다 보니 우리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굶주린 노숙자들은 오늘은 도움을 받았지만, 내일은 다시 배고플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활동에서는 물질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함을 느꼈고 이 활동의 진정한 목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후 내내 거리에서 그분들과 함께 머물렀고 각각의 개인적인 사연은 물론 인생 경험으로부터 우리나라 조연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이들이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고 있었기에, 그들은 젊은 우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목표와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술과 약물, 도박 등 중독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합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 본 그들의 삶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심정적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좋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이 포기한 꿈에 대한 이야기는 가슴이 아팠고 그로 인해 저는 제 삶의 목표를 이루고 싶은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혼자가 아닌 팀으로 함께 듣고 느낄 수 있어 더욱 기뻐했습니다.

청년들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실제로 갖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날 노숙자분들은 우리와의 헤어짐을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간증해주었습니다.

저는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활동을 통하여 많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늘 부모님께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늘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여쭙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보다 더 가까워짐을 목격하는 일은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지상천국 창건을 위한 성업에 2세권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하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굵어 살피 주시고 사랑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 카프활동으로 복귀된 믿음의 자녀 케이트 응웬 양의 간증

저의 할아버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 헌신적인 삶 덕분에 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덕분에 저는 3년 전, 우리 교회에 입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참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 제 삶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제 안의 모든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참사랑을 실천함으로 모두가 원하는 영원한 우정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미래 지도자가 되기 위한 1년의 양성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위하고 세계를 위해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있어 축복을 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의 승리를 위해 저는 CARP와 세계평화청년학생연합 활동에 매진하므로 교회와 외부 사회를 연결하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청년들에게 하늘부모님의 꿈을 일깨워 그 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영로나마 참부모님의 모습을 뵈을 때 저는 친부모님과 같은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저를 구원해주시고 사랑 주시는 참부모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참부모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전진대회 승리를 위한 신아프리카 베냉 신종족 메시아 활동

신아프리카 베냉의 '당보 천일국 신종족메시아센터'는  
두 차례의 '100만 희망전진대회'를 치르며 부흥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극히 지역적이었던 우리의 활동이 '피스링크'를 통해  
주류의 섭리에 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 간증을 담아 전합니다.

로랑 라두체



당보 천일국 신종족메시아센터에서 새벽 2시부터 시작된 희망전진대회를 함께 시청하고 있는 참석자들



새 집을 마련한 우마루와 팔릴라스 부부와 함께한 로랑

프랑스 출신인 6,000쌍 축복가정인 저는 신아프리카 대륙 서부에 위에 위치한 인구 1200만의 작은 나라, 베냉에서 신종족메시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본고에서 저는 베냉의 ‘당보 지역’에서 신종족메시아 활동을 중심으로 치러진 희망전진대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4월 오픈한 ‘당보 천일국 신종족메시아센터(HTM 센터)’는 피스링크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로 인해 부흥의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섭리의 일선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전 2027까지 인류의 삼분의 일을 복귀하고자 하시는 참여머님의 섭리에 충심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참여머님의 이 간절한 소망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독생녀로 태어나신 참여머님께서 이 크나큰 섭리 외에 어떤 작은 일에 마음을 두실 수 있을까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늘부모님의 의지가 곧 참여머님의 의지임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전 2장 4절)” 전한 성구와

같이 하늘부모님의 심정은 인내와 갈망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팬데믹에 휩싸였으며, 모든 것이 느려졌습니다.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사정에 더욱 가까워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희망전진대회는 이러한 하늘부모님의 심정을 전달할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특히 단절과 격리의 시대에 각자의 집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통해 하늘부모님의 사랑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므로 우리의 열망은 전염병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늘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78억 지상의 인류와 전 영계의 구원일 것입니다.

신종족메시아란 하늘부모님의 신성을 갖는 종족의 메시아가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늘부모님을 대신한 천일국의 신종족메시아로서 인류구원을 위한 섭리의 장인 희망전진대회에 새로운 생명을 접붙여야 합니다. 참여머님께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때, 인류가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말씀해주셨고 이러한 생명의 말씀은 비약적인 기술의 진보로 인하여 오색인종, 세계인에게 울려 퍼질 수 있었습니다.

### 성공과 희망의 밤

제1차 희망전진대회가 개최되기 3주 전, 화상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엠마누엘 올로곤 베냉 가정연합 회장이 신종족메시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2시, 아 니 그보다 더 늦은 시간에 희망전진대회가 개최된다면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의 시차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에서 대회가 이루어진 시각은 새벽 1시에서 4시에 이르는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던 저는 “최소한 43명을 HTM 센터에 데려오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부모님의 역사하심 덕분에 당보 HTM센터에는 51명의 초심자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하늘부모님의 아들이자 딸로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온 소박한 사람들은 이날 새로운 꿈과 비전에 눈뜰 수 있었습니다.

베냉과 같이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에 속해있는 세네갈의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과 니제르의 브리기 라 피니 수상이 나왔을 때 그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평화의 어머니, 참여머님의 말씀에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2차 희망전진대회에는 43명의 초심자가 참석하였습니다. 당보 지역은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지만 1차 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학생 유치에 힘써, 열다섯 명의 우수한 청년학생들을 참석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희망전진대회를 ‘성공과 희망의 밤’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대회도 그랬듯이, 만찬을 나누며 유대감을 갖고 ‘신종족 간증회’를 열어 희망적인 간증을 공유했습니다. 이후 센터에서 휴식을 취한 뒤 깊은 새벽에 이루어진 대회를 함께 시청했습니다.

### 식전 행사가 된 ‘신종족 간증회’

본식에 앞서 이루어졌던 ‘신종족 간증회’는 참석자들이 본 대회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천일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실제 삶의 모습을 간증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한 동기과 확신을 부여했습니다.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축복가정의 비전’을 주제로 발표되었던 저희 종족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마루와 팔릴라스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무슬림 신앙인인 부부는 베냉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플라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우마루는 당보의 명문 수확물리학연구소(IMSP)에서 수학 박사과정 중에 있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수확물리학연구소는 HTM 센터에서 불과 2마일 떨어져 있는 베냉 최고의 연구기관인데, 저는 당보에서 430쌍 축복을 완료한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4시, 혼자 센터를 지키다 출출함을 느꼈던 저는 도넛을 사기 위해 문밖을 나섰습니다. 그저 허기를 달래고자 나선 외출에서 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도넛을 사고 있던 똑똑한 인상의 청년에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수확물리학연구소 학생이죠?” 이 우연한 만남이 인연이 되어 다음 날 그는 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수학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요? 1부터 10까지 숫자가 평화의 구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려줄게요.” 저는 그의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얘기가 잘 통할까 걱정이 되었지만, 우마루는 흥미롭게 경청했고 그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원리공부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 있던 기간에도 그는 저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리공부를 지속했고 마침내 2020년 2월, 그는 아내인 팔릴라스와 성스러운 축복의 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들은 40일 성별기간과 3일행사를 정성으로 마치고 두 살짜리 아들 알 아시드와 함께 베냉으로 돌아온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행복해 보였지만, 아내인 팔릴라스는 두 가지 소원이 있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보를 떠나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직업을 갖고 싶어요. 남편의 봉급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저만의 수입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녀는 무슬림 여성을

취급하는 히잡을 쓰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슬림 여성에게는 많은 사회적 제약이 있었기에, 그녀는 마음에 담았던 소원을 털어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우마루는 갑자기 풀이 죽은 듯했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적을 깨고 테이블 밑으로 동물처럼 기어 내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테이블 위로 올라와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의미예요?” 저를 믿음의 아버지로 믿고 따르게 된 우마루가 물었고, 저는 그 물음에 답했습니다. “너는 아내가 어둠 속에 움츠려 있는 것이 좋으니, 밝은 곳에서 자유로운 것이 좋으니?”

“당연히 후자죠. 가장 밝은 곳에서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보를 떠나서 아내가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렴. 너의 아내를 두 배로 행복하게 해줘.”

대화를 나눈 지 사흘 후, 우마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벌써 이사했어요!”

“뭐라고?”

“네,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더 좋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원래 집보다 두 배 비싸긴 하지만 팔릴라스가 너무 좋아해요.”

24시간 만에, 그것도 일요일에, 그들은 기존 집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집을 찾아 이사를 마쳤던 것입니다. 마치 동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았습니다. 부부에게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축복 가정으로의 새 출발은 행복의 시야를 넓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저는 곧장 그들의 새로운 집으로 가서 성별과 함께 축도를 해주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우마루가 집 근처에 아내가 일할 수 있는 가게를 마련해 줌으로 아내의 두 가지 소원을 모두 이루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하고 존중한 부부의 러브스토리는 희망전진대회의 참가자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 하늘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축복가정의 비전

다음 연사로 빅토르와 페르미네 부부가 나섰습니다. 이들은 당보 지역에서 축복을 받은 첫 부부로 40일 성별기간과 3일행사를 마쳤습니다. 전통 의술에 상당한 재능이 있었던 남편 빅토르는 축복식 후에 당보 시내에서 8마일 떨어진 멋진 건물에 밝고 현대적인 병원을 개원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페르미네가 유산을 하면서 젊은 부부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하늘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던 내용을 간증해 모두를 감동케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전달했습니다. 두 커플은 모두 ‘비전’이 있었고, 하늘부모님을 중심한 축복가정이라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시련을 넘고 행복을 일구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던 축복으로 인해 더 큰 행복을 이룰 수 있었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아쉽게도 본 대회 때 저는 모국인 프랑스에서 대회에 참석하며 베냉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대회를 시청하는 참석자들의 진지한 표정과 태도에 감동했고, 특히 참여머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초심자들의 모습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큰 규모의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밑거름으로 새로운 생명이 깨어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당보 HTM 센터에서는 1차와 2차 희망전진대회를 통해 연결된 초심자들과의 교류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정성과 사랑 속에 8쌍의 가정이 축복을 받아 40일 성별과 3일 행사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피스링크를 통한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100만 희망전진대회’는 당보 지역 신종족메시아 활동의 부흥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 참부모님께서 밝혀주신 무도의 가치

성도원 세계평화무도연합 사무총장

경애하는 천일국 축복 가정 여러분! 지구촌 전체를 뒤덮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생활 양식이 크게 변한 가운데, 물리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평화무도연합은 이러한 시국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돌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술은 신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기에 대면 교육과 활동에 제약이 있는 오늘의 상황은 크게 불리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자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통일무도 '본'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本:근본 본)은 본연과 본보기, 모범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일본무술인 가라테에서 말하는 형(型:본보기 형)과 같은 것인데, 개인으로 실시하는 연무를 뜻합니다. 이러한 개인 연무는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게임 형식의 대회와 달리 개인 또는 소수의 집단에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대회의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통일무도 본 대회'에는 한국, 일본, 미국에서부터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태국, 인도, 아르헨티나, 말레이시

아, 독일, 브라질, 잠비아, 콩고 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총 14개국 70명의 선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온라인으로 개최된 통일무도 '기 춤' 대회

'통일무도 본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입어 저희는 지난 8월 2일부터 10일 간에 걸쳐 <통일무도 '기 춤'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본' 대회의 연무에 무용적인 표현을 더해 예술적 표현에 중점을 둔 연무대회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콩고공화국 총 8개국에서 9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대회는 참부모님의 말씀에 기인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체육 및 예술을 일체화시키는 것이 선생님의 계획입니다. 춤과 노래가 운동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체조식의 운동이 아닙니다. 음악과 합쳐진 무용식 체조 형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체육과 예술이 하나로 합치기 위해 운동을 하는 것입니

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295-165, 1998.08.19)

이런 참부모님의 말씀을 기초로 체육과 예술의 일체화, 즉 심정문화와 효정문화의 일익을 담당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을 위해 효정문화원과 세계평화무도연합이 후원하고 세계통일무도연맹이 주최하는 가운데 '통일무도 기 춤 대회'가 개최되었고 영예의 1위는 일본 팀이, 2위는 한국 팀이, 3위에는 콩고 팀이 입상했습니다.

'기 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은 무술과 음악이 합쳐진 연무를 통해 하늘부모님의 소원과 참부모님의 승리와 희망, 중단없는 전진의 노정을 표현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예술적 퍼포먼스를 선보인 선수들은 통일무도 '기 춤'을 통해 체육과 예술의 일치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지에서 참석한 통일무도 선수들이 문화와 국경을 넘어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므로 평화세계 실현의 희망을 보여준 대회가 되었습니다.



세계통일무도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연무를 펼치는 참석자들



중요지도만승지원의 정신으로 통일무도를 연마한 효정랑들이 미래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

### 무도인이 새겨야 할 새로운 철학

저는 무도 섭리의 일선에서 지난 20년간 활동해 나왔습니다. 섭리의 조국 한국을 찾아온 유학생들과 천주평화사관학교 생도들을 가르치고 지역 교회에서도 무도를 가르쳤으며, 지도자 과정에 있기 전에는 선문대학교 무도학과에서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존경하는 무술 사범들의 제자가 되어 많은 분야의 무술을 익히는 수행자의 자세를 지켰습니다. 선문대학교 무도학과 설립 당시 태권도와 유도, 검도, 합기도 등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부전공으로 다른 무술을 배우는 교육 정책이 도입되었고 최고의 무술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의 무술만을 고집하는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통일무도연맹의 설립자인 석준호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 저의 이러한 무도 이력을 들은 박사님은 “신앙을 바탕으로 많은 무술을 섭렵한 것은 이미 통일무도를 배워 온 것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통일무도는 모든 무술을 통일원리를 중심으로 화합하고 통일하는 무술임

으로 겸손한 입장에서 모든 무술에서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무도섭리의 중심이 되는 무도는 가라테에서 정도술, 원화도 그리고 통일무도로 변천해 왔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변천 속에서 무도섭리에 종사해온 선배님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연마해온 무술 종목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통일무도 40주년을 맞이한 2019년, 참부모님께서서는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부모로서 타락한 인류를 참부모 재세 시에 어떻게 하면 한 민족이라도 더, 한 생명이라도 더 하늘부모님 앞에 참다운 효자 효녀로서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인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의 하나로 통일무도를 만들었습니다.” (2019.8.28 세계통일무도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식)

이 말씀은 천일국 안착 시대의 지침이며 근거인 동시에 지금까지의 무도섭리가 이끌어낸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참부모님께서서는 이날 무도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충격적으로 느껴졌던 이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함께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개체의 마음과 몸도 하나 만들지 못하는 자리에서 가정과 민족과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부모님,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참부모가 우리의 참부모인 줄을 압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축복가정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참부모와 절대적으로 하나 된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통일된 자리인 것입니다.” (2019.8.28 세계통일무도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식)

참부모님을 떠나서 몸과 마음의 통일을 주장해도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까지 ‘심신통일’에 뛰어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온 무술인들의 오랜 교만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심신통일에 대한



세계통일무도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식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함께 해 주신 참여어님

새로운 개념 제시이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무도섭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개인적으로 뛰어난 무술의 달인이고 원만한 인격자라 할지라도 결국은 '참부모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최후의 갈림길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반성과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 참부모님께 기쁨을 드린 추억

올해는 참아버님의 천주성화 8주년이 됩니다. 성화하시기 1년 전, 저는 여수 해양 수련원 혼동회장에서 참아버님께 지명되어 연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도복도 음향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례를 무릅쓰고 노래에 맞춰 해도 되는지를 아버님께 여쭙었습니다. "노래를 해야 해?"라고 물으신 아버님께 저는 "노래에 맞춰 하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말씀드렸고, 아버님께서서는 흔쾌히 허락해 주시며 아리랑 노래를 함께 부르자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식구들의 흥겨운 노래에 맞춰 무술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돌아보니 그 또한 아버님께서 말씀으로 탄생한 '기춤'이었습니다. 시범이 끝난 후, 아버님께서서는 열정적으로 무술 동작을 시연하시면서 무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무도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낌과 동시에 무도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신이 나고 기쁜 표정으로

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저의 연무로도 기쁨을 드릴 수 있었는데, 젊은 축복2세, 3세의 자녀들의 무도에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 제가 무도를 배우고 또한 청년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유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평화무도연합은 참아버님의 성화 이후, 매년 성화절에 즈음하여 '무도축전'을 열어 왔습니다. 통일무도뿐만 아니라 태권도와 유도 등 다양한 종목의 무도 단체가 함께 모이는 축전의 장을 만들어 참부모님의 뜻과 비전을 확산해 온 것입니다.

####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무도 섭리

무도 섭리를 위해 '세계평화무도연합'과 '세계통일무도연맹'이라는 두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나, 잘 모르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빌려 조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1997년 참부모님 말씀에 의해 설립된 '세계평화무도연합' 사명은 다양한 무술 활동을 통한 천일국 창건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무도 UN'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해 세계평화무도연합은 본 연합과 보조를 맞추어 세계평화에 공헌하고자 하는 무도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세계통일무도연맹'은 가라테와 유도와 같이 무술 종목

으로서 '통일무도'를 공식화한 법인단체이며 석준호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세계통일무도연맹은 세계평화무도연합 산하 단체 중 하나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참부모와 절대적으로 하나 된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통일된 자리인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듯, 세계통일무도연맹은 참부모님의 존영과 참부모님께서 주신 '단련용진(鍛鍊勇進: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단련시켜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감)', '충효지도만승지원(忠孝之道萬勝之源: 모든 일을 충효의 마음, 즉 부모님과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행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다)'의 휘호를 내걸고, 운동 전에는 경배와 말씀 훈독을 실천하며 참부모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무술단체로서 활동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무도인과 무도단체가 하늘부모님의 소원에 부응하지 못한 가운데 통일무도는 하늘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용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전진할 수 있는 무도인은 미래 시대를 책임지는 '효정량'의 선봉으로서 필수인재가 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도 무도 교육이 하루라도 빨리 보급되기를 바라며,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본연의 무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뜻을 받들어 바라신 바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 성가의 뿌리를 찾아서

신일본 성가편찬위원 아마노 테루에(777 가정)



1944년 시즈오카에서 태어난 작가는 성가 편찬위원회 위원으로 성가 작곡과 작사에 동참했으며, 합창단의 지휘자로도 활동하며 성가 대중화에 힘써오고 있다.

## 성악성가는 하늘의 보물

종교사에 있어서 회화와 건축은 훌륭한 문화유산으로서 남겨져 있지만, 음악은 무형 유산으로 계승되어 왔습니다. 음악은 무형으로 시대를 표현해온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

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예술인 성가 음악은 영계와의 교류를 체휼케 하는 다리가 되어 왔으며,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악령으로 힘들어 착란상태가 되었을 때, 다윗이 거문고를 타는 소리로 진정시켰다는 기록(사무엘서 상 16-23)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한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음악은 신이 내린 선물이며, 은혜이며, 악마를 쫓고,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것을 잊게 한다.’라고 말했듯, 음악은 본성의 영계와 통하는 힘을 지니며 악의 힘을 단절케 합니다.

특히 성악성가는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걸어오신 길과 성도들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성가 한 곡 한 곡이 만들어지고 전승될 때의 감동이 영계에 밝은 에너지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감동하며 성가를 부를 때, 그 곡과 온전히 공명한다면 천사와 선한 천상세계가 기쁨으로 내려와 함께 노래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창기에 전도된 치즈코 라니영 식구

는 참부모님께서 일본에 방문하셨을 때 ‘영광의 은사’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영안이 열린 치즈코 라니영 식구는 성직자와 순교자를 비롯한 영계의 기독교인 무리가 모여들어 눈물을 흘리며 함께 노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1) 라는 성구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천보 역사에서도 승리의 영계가 열린 기쁨을 성가6장, ‘성원의 은사’를 부르며 선한 영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음악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계에서 전해온 음률을 듣고 그것을 표현해낸 사람들은 음악사 상에 찬란히 빛나는 ‘악성(樂聖)’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영계에서는 명곡과 우수한 노랫말이 탄생하고 있으며, ‘지상에서 그것을 받아 옮겨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교육하고 훈련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부모님성회 공동체에도 분명 그런 훈련을 받고 하늘과 공명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스페인 코르도바의 성 마리아 대성당. 천사의 자리로 공경 받아 온 성가대석. 성경의 각기 다른 이야기가 부조로 새겨진 성가대 석은 12년에 걸쳐 제작되었다.

1978년, 참아버님께서 “연주하고 박수를 받아도 성공했다고 기뻐하며 날뛰어서는 안 된다. 모든 청중의 환성을 영계에 돌아간 전문가들에게 돌리라!”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음악가와 예술가들에게 있어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찍이 루터가 말한 바와 같이 “음악은 신이 보내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 성가·찬송가의 기원「시편」

음악에는 이처럼 거룩하고 신비로운 힘이 있는 데다가 성가·찬송가에는 언령(言靈)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가·찬송가에 깃들어있는 언령(言靈)은 구약성서 ‘시편’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느낀 감사와 기쁨, 왕의 즉위, 민족의 고뇌 등 신의 은혜에 대한 찬미와 메시아에 관한 예언적 내용이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작자에 의해 만들어져 가곡 형식으로 구전되어 오면서 신이 인도하신 민족의 혼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 인간의 시선에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내용이 많아서 놀랍기도 합니다. 시편을 읽어 본 독자분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솔직한 시편의 내용에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는 걸까?’하고 의문을 가져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가리지 않고 슬픔과 고달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필사적으로 부모를 부르듯,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침에 응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은 생각의 틀이 깨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어 일어나 다시 걸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하늘과 접붙어 상승하는 영적 승리의 길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분별과 사투를 벌이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야말로 성가와 찬송가의 기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가의 원형인 시편은 인간에게 들려주는 것이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동물의 번제(燔祭)를 초월하는 ‘찬송의 제물’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 시편을 부르는 것은 산 제사이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적 사투

시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은 다

윗입니다. 다윗의 바램은 단 하나, ‘주님이 임재하심이 바로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없었던 ‘음악을 동반한 찬송’을 도입해 예배의 개혁을 도모했습니다. 각양각색의 악기를 사용하며 훌륭한 성가대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바빌론의 유수기(B.C. 587)까지는 주로 레위족이 예배에서 찬양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레위족인데, 이 말은 즉슨 출 이집트를 이뤄낸 계보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레위족은 신앙을 세워 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성서에는 성가대의 대표자 중 한 명으로 다윗에게 임명된 레위족의 ‘아사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사프의 자손이 예배 찬양을 이끌게 되었고 성가대의 대조상이자 시인이 되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성가대를 육성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만 8천 명의 레위족 중에서 4천 명이 찬양을 위해 선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선된 288명의 찬양봉사자는 12명씩 24개조로 나뉘어 신전 안에서 24시간 끊임없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했



영계의 음악은 한 방향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서 들려온다고 증언된 간중에 따라 벽 전체를 사용하는 파이프 오르간이 만들어졌다는 설이 있다.

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영성)과 목소리(표현)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요구되었고 선발된 봉사자들은 영성의 표현을 위해 수련했습니다. 다윗(B.C. 1000~962) · 솔로몬 시대(B.C. ?~912)부터는 영성 표현 훈련이 결실을 맺은 서른 살부터 성가대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레위족은 토지 등의 물려받은 가업이 없고 '주를 섬기는 일'이 직업이었습니다. 시편을 부르는 것은 뛰어난 제물로서의 '산 제사'이자 진지한 기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영적인 사투였던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클레시아, 고대 그리스 · 로마)는 시편을 전승해 거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해 갔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성가와 찬송가는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겹세마네 철야 기도를 떠나시기 전 시편을 찬송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도 시편 22장의 첫마디를 외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리, 에리, 레마, 사박타니! (시편 22:1: 나의 하나님여! 나의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신 외침은 신에게 버림받은 슬픔을 호소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2장 전체를 보면 마지막에는 신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림 기대를 만들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지금도 영계에서 온 힘을 다하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유대교, 기독교에서 가정연합으로 계승된 음악과 언어

성가 · 찬송가에 담긴 음악과 언어, 그 격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당해온 중심 종교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계승되어왔고,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맞이한 오늘, 우리의 손에 계승되어 있습니다.

신일본 가정연합에서는 지난 10년간 성가대 콩쿠르 결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아닌 성가대를 키우기 위한 콩쿠르를 하는 단체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시대가 온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속해서 한다는 것은 기도와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령이 내려오는 제단을 위한 성가대! 그것을 탄생케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람이면서 조심스레 키워나가야 할 희망이기도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뛰어난 예배와 뛰어난 성가대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예배'에

서 대표 보고 기도 등의 배경음악으로 피아노 연주나 BGM을 넣는 것은 본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점은 점차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 기도에 피아노 반주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창기에 민가 등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위의 생활 소음을 지우기 위해, 또는 수련회 등에 참가해 기도하는 것이 처음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배경음악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작의 알림 역할을 하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는 습관처럼 선율이 들리는 연주가 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선율을 쫓게 되어 기도의 공명권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처음에는 부족한 듯 느낄지 모르지만 “기도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반향(반응)을 듣는 것이다”라고 하신 참아버님 말씀처럼 피아노 소리가 들어가지 않는 기도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기도 등은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찬송의 깊은 뿌리를 찾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강의 원류를 따라가는 여행과 비슷합니다. 물에는 끝이 없는 근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근원을 둘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우리의 성가는 계승될 것이며 새로운 찬송가가 계속 창작될 것입니다. 그 감동은 혈액이 되고 지상과 천상의 음파가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전체의 기도를 돕고, 예배를 풍요롭게 하며, 새로운 문화에 생명의 물을 부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래해야 합니다. 부디 크디큰 하늘의 힘과 하나되게 하소서! 

본기사는 신일본가정연합 월간지 '세계가정'의 2020년 2월호 기사를 옮긴 것입니다.

